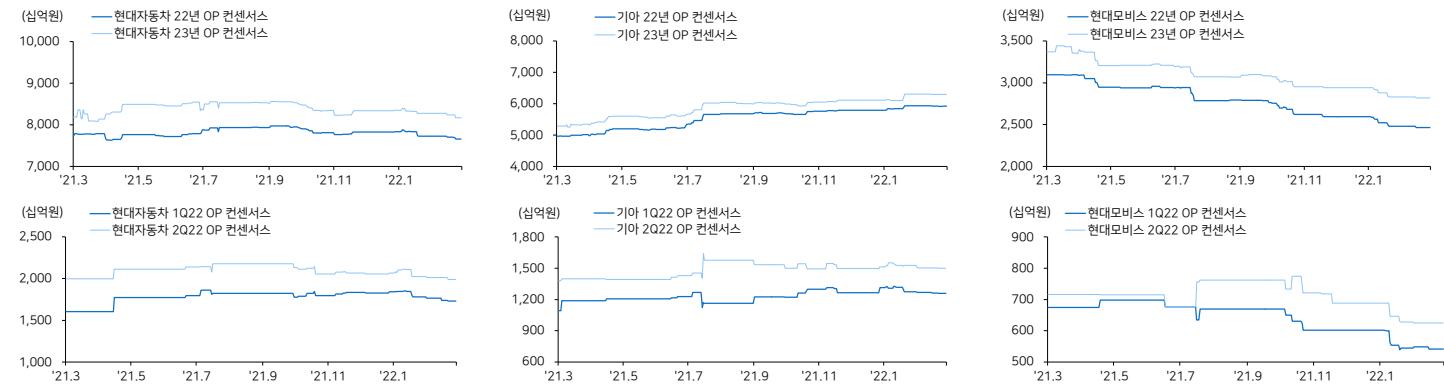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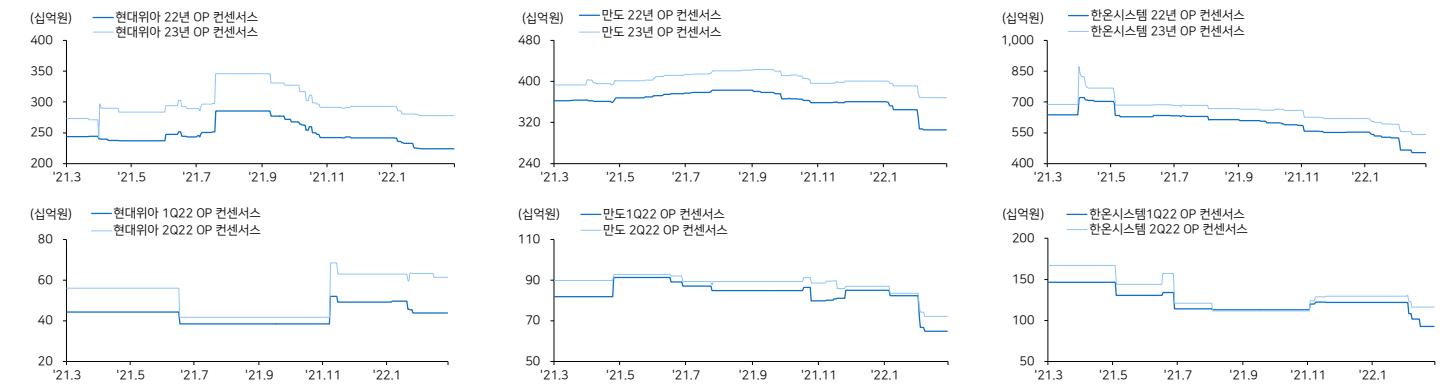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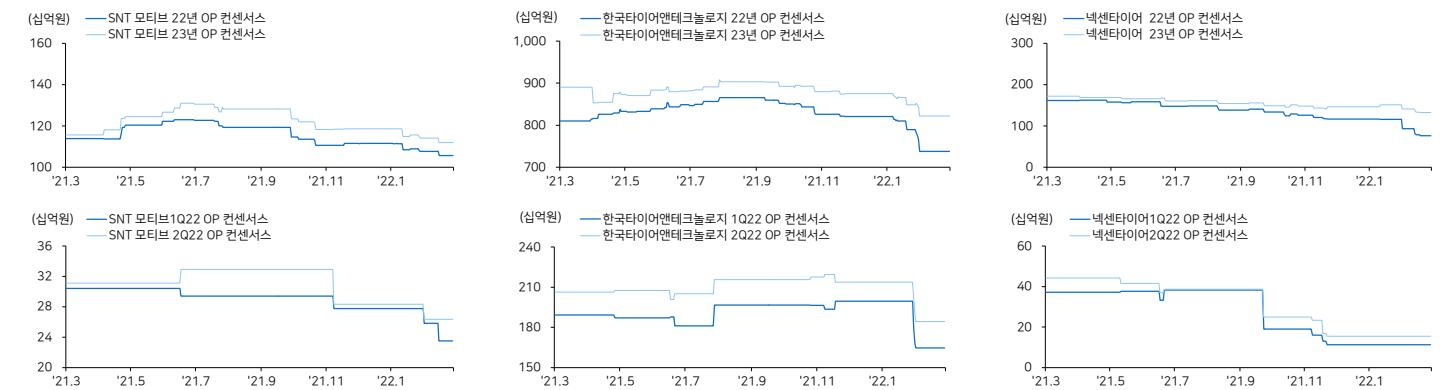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다음차는 전기차 살래...전기차 선호도 설문조사서 95%가 구매의사 밝혀 (Auto Daily)

2022년 전기차 선호도 결과(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성인남녀 2,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)에 따르면, 전기차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95%(1,994명)가 구매의사를 밝혔. 구매시 고려사항은 '최대주행거리', '충전소 설치' 등이 꼽혔.
<https://bit.ly/3MRlbzH>

반도체 공급가 인상...車·가전 가격도 오르나 (아이뉴스24)

TSMC 2022년 8인치 반도체 공급 가격을 최대 20% 인상 예정을 발표하면서 다른 국내외 파운드리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. 원제품 업체들은 이같은 가격 인상에 생산 원가 부담이 커질까 우려.
<https://bit.ly/3MTeZSJ>

Ford to release second electric car based on VW's MEB platform (electrek)

포드와 폭스바겐은 전기차 푸트너십 확대를 발표, 포드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두 번째 전기차 출시 예정. 개방형 MEB 플랫폼을 통해 OEM이 푸트풀리오를 빠르게 비용효율적으로 전기화할 수 있다고 폭스바겐이 보도함.
<https://bit.ly/3tbioL2>

Northvolt announces new battery gigafactory coming to Germany (electrek)

노스볼트는 독일에 세 번째 배터리셀 기기팩토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. 연간 60Gwh 규모로 유럽 시장 전기차 100만대에 리튬 이온배터리 공급이 가능할 전망. 지난 12월 노스볼트는 첫번째 기기팩토리에서 배터리셀 생산을 시작함.
<https://bit.ly/3KNB7Cm>

美 3200만km, 韓 72만km... 자동주행 경쟁서 뒤처지는 한국 (조선일보)

미국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는 각각 3200만km(2021년 기준), 2100만km(2021년 기준)에 이르는 주행 거리를 축적했지만, 한국 업체 전체의 주행거리 합계는 72만km에 불과. 핵심인 주행데이터에서부터 차이가 크게 발생함.
<https://bit.ly/3qazQbA>

中 세계 최 1·차·도로·협동 자율주행 데이터세트 발표 (ZDNet Korea)

청화대 스마트산업연구원, 베이징시, 바이두 애플로 등이 공동으로 '세계 최초 차로협동 자율주행 데이터세트'를 발표, 중국에서 다른로드 가능, 같은 시공간 상황에서 차량과 도로를 연결한 시각으로 2D/3D 모드의 데이터를 제공.
<https://bit.ly/3MTpRS1>

Volkswagen CEO says 2022 outlook clouded by war in Ukraine (Reuters)

폭스바겐 CEO 디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2022년 경기침체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언급함. 상상적인 상황이라면 물에 낙관적으로 풀 수 있으나 선전이 원자재·급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.
<https://reut.rs/3tqazHj>

Mercedes-Benz launches new battery plant ahead of 2030 all-EV commitment (Teslarati)

메르세데스-벤츠가 '30년까지 모든 차량 전기화 계획을 위해 멜라비아주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것'이라고 밝힘. 이는 Envision AESC와 함께 향후 10년간 계획 중인 8개 공장의 일부로, 전동화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.
<https://bit.ly/3Jjg6b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·의심·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